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실현하는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 2016-2018

융성하는 영화산업, 세계로 향하는 한국영화

| 2016.03.10(목) |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실현하는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 2016-2018

융성하는 영화산업, 세계로 향하는 한국영화





CONTENT

I. 지금 한국영화는	1
1. 문화산업과 대중문화의 선두주자	
2. 공공부문의 성장기반 지원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7
1. 세계 영화시장 현황	
2. 우리 영화시장의 과제	
3. 바람직한 발전 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15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 · 상생 생태계 조성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34
 참고 주요 과제 추진 일정	36



I

지금 한국영화는

1. 문화산업과 대중문화의 선두주자
2. 공공부문의 성장기반 지원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문화산업과 대중문화의 선두주자
2. 공공부문의 성장기반 지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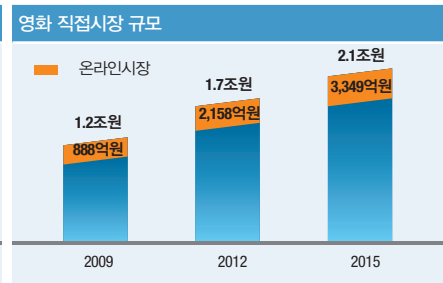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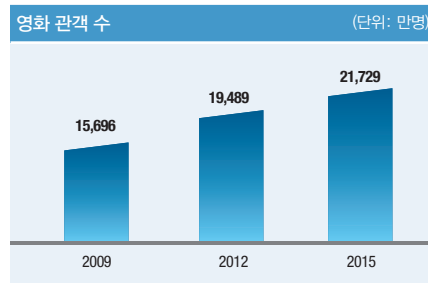
문화산업과 대중문화의 선두주자

성장하는 영화시장

- ▶ 영화관객 2억명('13년~), 직접 유통시장 2조원 시대('14년~) 시작

— '15년 영화관 입장권 매출 1조 7,154억원, 부가시장(온라인, 수출 등) 3,977억원

- ▶ 온라인 등 부가시장은 '09년 888억원에서 '15년 3,349억원으로 3배 이상 (377%) 급격히 성장



- ▶ 한국영화는 국내 극장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0%대를 유지하며, 할리우드 영화와 비등한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여러 회사들이 활발하게 경쟁하면서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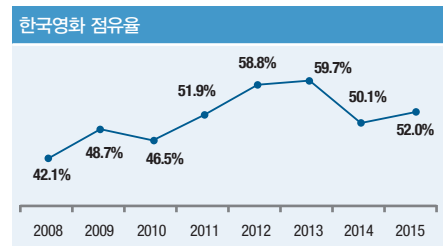
— '08년 42.1%이던 한국영화 점유율은 '11년 이후 50%대 유지

— 제작, 배급, 투자 등 전 영역에 걸친 활발한 산업활동

* '12년 이후 1천만 관객 한국영화 8편이 나오는 등 성공한 제작사 배출

* 다양한 중소배급사들의 시장진입(씨네그루(주)다우기술, 리틀빅픽처스, 메가박스(주)플러스엠 등)

* NEW가 새로운 메이저 투자배급사로 성장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문화산업과 대중문화의 선두주자
2. 공공부문의 성장기반 지원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정착

- ▶ 국민 1인당 연평균 극장영화 관람횟수는 4.22회('15년)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문화예술행사 중 가장 높은 관람률(65.8%) 기록

- ▲관객 수는 '15년 2억1천7백만명으로 '08년 1억 5천만명보다 45% 증가 ▲개봉영화 편수는 '15년 1,176편으로 '08년 380편보다 210% 증가 ▲스크린 수는 '15년 2,424개로 '08년 2,004개보다 21% 증가
- 「2014년 문화향수 실태조사」 2위 대중음악공연 14.4%, 3위 연극 12.6%, 4위 뮤지컬 11.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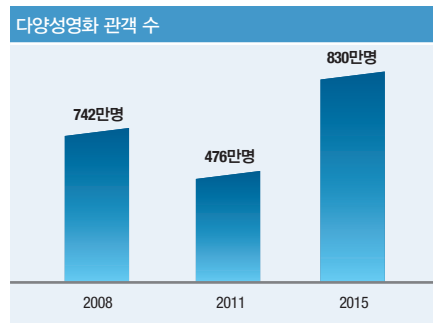
2014년도 해외 각국의 1인당 연평균 극장영화 관람횟수

국가	아이슬란드	미국	호주	프랑스	영국	인도	독일	이탈리아	일본
횟수	4.0	3.6	3.3	3.1	2.4	1.5	1.5	1.5	1.3

(출처 : IHS)

- ▶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재개봉영화 등 다양한 영화관람 확산

- 다양성영화 관객수는 '08년 742만명에서 '15년 830만명으로 증가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문화산업과 대중문화의 선두주자
2. 공공부문의 성장기반 지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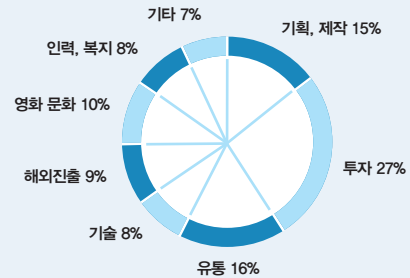
공공부문의 성장기반 지원

성장기반 마련 및 진흥

- ▶ 정부출연금(2천억원)과 영화상영권 입장권부과금('07년 7월~'14년까지 2,606억)을 재원으로 하는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영화예술과 영화산업 전반을 지원

— '14년까지 산업전반에 3,574억원 지원
(기획·제작, 투자, 유통, 기술,
해외진출, 영화 문화, 인력·복지 등)

분야별 기금 지원 비중



분야별 기금지원 금액('07~'14년/단위: 백만원)

분야	기획·제작	투자	유통	기술	해외진출	영화문화	인력·복지	기타
지원금	52,217	94,702	57,961	28,519	33,474	35,029	30,061	25,428

1) 영화발전기금(구 영화진흥금고 포함)에서 1,362억을 출자하여 43개 조합 총 5,579억원 조성, 영화제작에 6,770.5억원 투자, 직접지원 대비 약 5배의 효과 창출. 이와 별개로 '06년부터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조성된 총 1조 2천억원(정부 출자 4,963억원) 규모 54개 펀드에서 지난 9년간 영화분야에 7,980억원 투자

- ▶ 영화발전기금을 활용한 영화예술·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더해, 영상전문 투자조합 결성('00년~)¹⁾,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03년~) 구축, 한국영화 아카데미('84년~) 운영 등 산업 인프라 구축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문화산업과 대중문화의 선두주자
2. 공공부문의 성장기반 지원

공정한 산업질서 형성 지원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

▶ 여러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법률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감

- 영화진흥위원회 사업 지원시 관련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영화 스태프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법령 마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15년 5월).
- 근로, 상영, 투자, 시나리오, 시각특수효과(VFX)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노사정 이행협약」 등 영화업계 공정 관행 정착을 위한 자율 협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함

-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12~'13년),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 환경 조성 협약('14년) 체결, 산업내 불합리·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
- * ▲서울시내 한국영화 부울 조정(CGV, 롯데시네마 직영상영관) ▲디지털 영사비용(VPF) 지급 종료(CGV, 롯데시네마)
- ▲최소 상영기간 보장 및 공정한 예매 오픈 등
- 3차례 '노사정 이행협약'('12~'14년)을 통해 안정적인 영화 스태프 근로 환경을 마련하고 현장 상황 개선 중
- *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13년 5.1%(별도조사) → '14년 29.4%(2014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 '15년 3/4분기 43.4%(별도조사, 상업영화 65편 대상)로 증가

▶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운영('14~)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관행을 조사하고 해결 조치함

- 임금체불기업에 대한 정부출자 펀드의 투자 금지, 불공정 상영행위에 대한 상영관 기업별 영화상영정보 상시 공개(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등 조치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1. 세계 영화시장 현황
2. 우리 영화시장의 과제
3. 바람직한 발전 방향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세계 영화시장 현황
2. 우리 영화시장의 과제
3. 바람직한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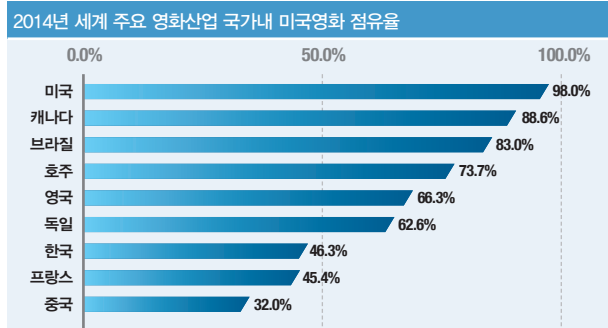
1

세계 영화시장 현황

미국 주도과 중국의 빠른 성장

▶ 세계 1위 자국시장을 가진 미국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대자본을 동원, 전 세계 배우, 창작·제작인력과 시각특수효과를 활용해 만들어내고 있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세계 영화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14년도 7개 메이저 스튜디오(20세기 폭스, 월트 디즈니, 워너 브라더스, 소니,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라이온스게이트) 영화의 세계 상영관 매출은 243억달러(약 27조원, 시장점유율 67%)에 달함
- 또한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회사는 자국영화 점유율이 높은 해외국가에서 현지영화 제작투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배력 유지와 확대를 시도하고 있음²⁾



(출처: IHS, PwC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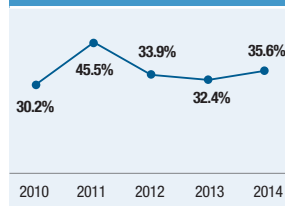
2)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 폭스, 워너 브라더스는 2~3년전 부터 한국영화제작에 투자(《런닝맨》, 《슬로우 비디오》, 《곡성 (제작 중)》, 《밀정(제작 중)》)

3) 완다그룹은 미국 2위 상영관 기업 AMC(26억달러)와 제작사인 레전더리픽처스(35억달러)인수, 차이나필름(《분노의 질주7》), 알리바바(《미션임파서블 5》) 등 기업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투자, 한국 NEW에 화학 미디어가 535억원 투자, 텍스터에 완다그룹이 100억원 투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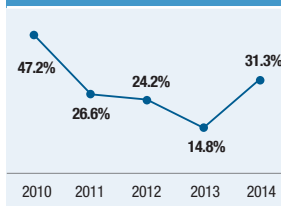
▶ 중국 영화산업은 대자본과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연 30%에 달하는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음

- '18년에는 세계 1위 시장이 될 전망이며, 할리우드 영화 투자, 해외영화사 지분매입 등 공격적 진출로 세계시장에서 영향력 강화 중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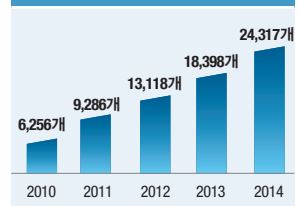
중국 연도별 관객 증가율



중국 연도별 시장성장률



중국 연도별 영화 스크린 수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세계 영화시장 현황
2. 우리 영화시장의 과제
3. 바람직한 발전 방향

▶ 아세안 지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중심으로, 중남미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

- 인도네시아(인구 2억5천만)와 베트남(인구 9천3백만)은 많은 인구와 정부지원, 우수 영화인력, 상영관 증가 등을 바탕으로 성장 중
- 중남미 시장은 '19년까지 연평균 7%씩 성장 예상

온라인 영화시장의 확대

▶ 온라인 영화시장은 '19년까지 연평균 10.5% 성장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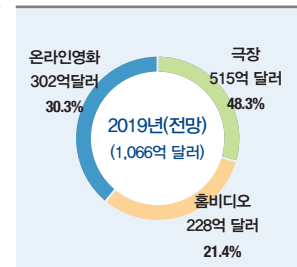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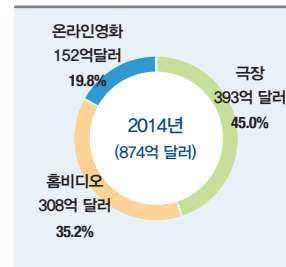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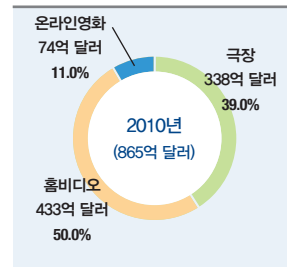
- 특히 OTT⁴⁾ 중심의 북미 온라인 영화시장은 '19년까지 연평균 14.5% 성장, 상영관 매출을 추월하여 북미 영화산업 매출의 4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PwC)

▶ 온라인 서비스업체가 직접 영화를 제작, 투자하거나 온라인으로 개봉하는 영화제작이 활발해져 전통적 방식의 시장흐름을 탈피하는 추세⁵⁾

부문별 세계 영화시장 규모 변화 추이

4) OTT(Over The Top)는 셋톱박스 없는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로 미국 넷플릭스, 훌루(20세기 폭스, 유니버설, 디즈니의 공동투자 회사)가 대표적 기업

5) 미국기업 '넷플릭스'는 <와호 장룡2>, <옥자> (봉준호 감독) 제작·투자, '아마존'과 중국기업 '알리바바', '바이두'는 영화제작, 서비스 자회사 설립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세계 영화시장 현황
2. 우리 영화시장의 과제
3. 바람직한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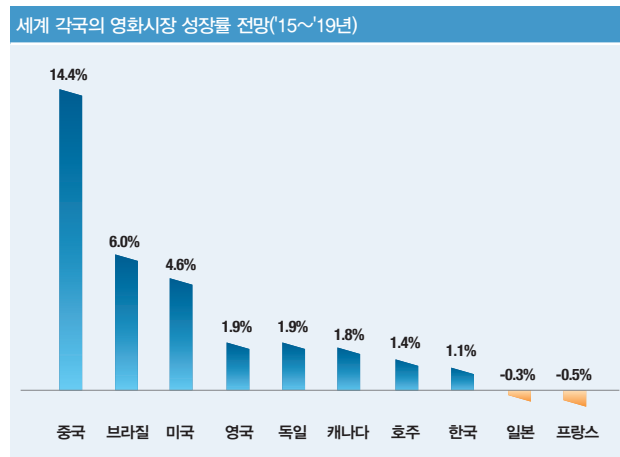
2

우리 영화시장의 과제

산업의 활력 저하

- ▶ 인구대비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한 영화관객 수가 고령화, 낮은 출산율을 고려할 때 조만간 정체될 것으로 예상

– 한국영화시장은 '15~'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 성장 전망(PwC)



- ▶ 애니메이션 등 가족영화(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의 경우 기획, 자본, 기술 등 모든 면에서 할리우드 영화에 비해 경쟁력 열세

- 지난 5년간 전체 관람가 영화 관객의 한국영화 점유율은 12.9%, 12세 관람가 31.0%에 불과
- 애니메이션 영화 관객수는 5년간 8천9백만명이나 한국 애니메이션 관객은 7.0%인 624만명, 외국 애니메이션 관객이 93.0%인 8천280만명

* 애니메이션은 문화 할인율이 낮아 타 문화권 내 수용도가 실사영화에 비해 매우 높아서 해외 수출에 적합한 영화 장르임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세계 영화시장 현황
2. 우리 영화시장의 과제
3. 바람직한 발전 방향

▶ **할리우드 영화는 고품질 3D영화, 첨단 특수효과(CG/VFX)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가는데 비해 국내 영화계의 시도는 제작비 한계로 인해 부족한 편임**

– '13년 <미스터 고> 이후 전체 3D로 제작된 상업영화는 없으며, 국내 특수효과 업체들의 매출은 대부분 중국영화 프로젝트에서 발생

▶ **안정지향형 영화제작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영화문화 측면에서 깊이와 다양성이 부족해지는 등 획일화에 대한 우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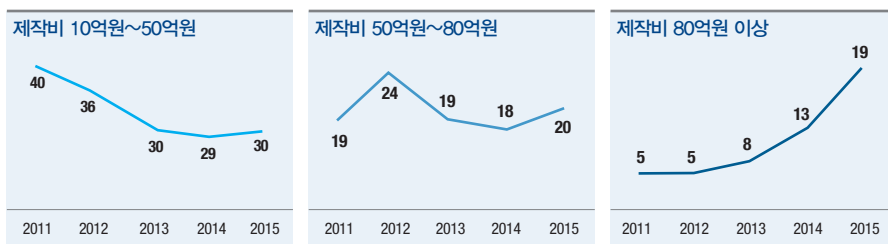
- 중저예산 규모(10억~50억원) 영화시장 약세, 지난 5년간 제작편수 25% 감소 (11년 40편에서 '15년 30편)
- 제작비 80억원 이상의 대작영화는 '11년 5편에서 '15년 19편으로 증가
- 대작영화는 평균 수익률이 높은 반면, 중저예산영화는 수익률이 매우 낮음

2015년 한국영화 총제작비 구간별 투자수익률(추정치)

구 분	편 수	수익률
80억 원 이상	17	26.1%
평균제작비(52.3억원) ~ 80억원 미만	17	-22.2%
10억원이상 ~ 평균제작비 미만	31	-56.9%
10억원 미만	8	-42.4%

2011년~2015년 제작비 규모별 한국영화 편수

(단위: 편)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세계 영화시장 현황 2. 우리 영화시장의 과제 3. 바람직한 발전 방향		

상영관 매출 이외 수익창구 부족

6) 온라인 시장은 통합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 부족

- ▶ 영화산업 직접매출 중 상영관 입장권매출 비중이 85%(세계평균 40%)를 차지하여 단기 스크린 확보 경쟁 및 마케팅비용 상승을 유발
- ▶ 온라인 영화시장은 커지고 있는 중이나 아직 규모가 작고('15년 기준 매출액 3,349억원), 미국과 달리 OTT 서비스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⁶⁾
- ▶ 완성작 수출은 '05년 832억원 수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15년 332억원)

창작 및 향유 여건 미비

- ▶ 업계 자율 노력,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스태프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
 - 특히 10억원 미만 저예산 영화들은 표준계약서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 ▶ 예술영화 등 실험적이고 다양한 영화들은 관객 선호도가 낮고, 상영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창작과 상영이 어려운 상황
 - 다양성영화 관객은 다소 증가했으나 아직 낮은 수준('15년 830만명으로 전체의 3.8%)
- ▶ 영화산업 일자리와 매출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 지속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국내매출 76.1% 발생, 종사자 64.7% 거주, 수도권 영화관 수는 전국의 44.1%(스크린 수 45.1%)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세계 영화시장 현황
2. 우리 영화시장의 과제
3. 바람직한 발전 방향

3

바람직한 발전방향

영화발전기금 2기⁷⁾ 지원방향 및 민관 역할 다시 정립

- ▶ 시장이 성장하고 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10년 이상 지속된 지원 패러다임 혁신 필요
 - 시장 실패 보완, 공적 지원 필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조정
 - 산업화된 시장환경에 맞춰 금융 투자 등 간접지원 확대
- ▶ 새로 제정된 <문화기본법>('14.03.31) <지역문화진흥법>('14.03.31) <국민여가 활성화기본법>('15.11.19)의 취지를 반영하여, 창작자 중심 기존 문화정책(문화예술, 문화산업)을 수요자 중심 문화정책(국민의 문화에 대한 참여와 향유)으로 확대하여 나가야 함
- ▶ 기존 제도와 지원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개선·중단 여부를 결정하여 그 효과성을 높여야 함

7) '14년,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15년부터 '21년까지 7년간 연장,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조치

산업의 역동성을 살리며, 시장범위를 넓힐 필요

- ▶ 완성도 높고 다양한 영화 시나리오가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영화화 될 수 있는 제작-투자 상황을 만들고, 영상 표현력을 높일 수 있는 영상기술이 제작비의 제약을 넘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중간규모 영화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중견 제작사가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함
- ▶ 온라인 영화서비스, 해외시장 진출, 해외 영화제작의 국내 유치 등 새로운 시장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

상생,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 환경 만들 필요

- ▶ 영화인들이 영화를 지속가능한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근로여건 마련
- ▶ 경쟁 속에 공정함과 다양함이 공존하는 시장질서 구축
- ▶ 지역, 계층을 넘어 보다 많은 사람이 영화를 누리는 문화와 산업환경 조성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 · 상생 생태계 조성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비전	융성하는 영화산업, 세계로 향하는 한국영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 · 상생 생태계 조성 ▶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추진 과제	<div>창작 역량 강화</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화가 되도록 지원 2 영화제작 시장의 허리를 튼튼하게 강화 3 영화인의 전문성이 일하면서 커지도록 도움 4 상상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국영화 기술 향상 지원
	<div>누림 · 상생 생태계 조성</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공정하게 일하며 두루 성장하는 영화산업 만들기 6 창의영화가 지역마다 자라나도록 지원 7 더 많은 사람이, 더 잘 누리도록 도움
	<div>내수 한계 극복</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8 온라인 영화시장을 키워 영화산업 먹거리를 찾도록 지원 9 세계가 선택하는 촬영 인프라 마련 10 영화산업 영토를 넓히는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 ▶ 다양한 영화기획이 여러 통로로 만들어지고, 시나리오와 제작·투자가 체계적으로 연결, 영화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한국영화의 창의성을 유지하고 산업을 발전시킴
- ▶ 저예산과 대작영화로 제작시장이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중급영화가 활발하게 제작되고 유통되도록 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애니메이션 영화 등 가족영화를 활성화시켜야 함
- ▶ 영화인들이 현장에서 일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와 재교육 지원
- ▶ 한국영화 제작·투자자가 시각특수효과를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영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1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화가 되도록 지원

다양한 소재의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 발굴

- ▶ **[작가] 시나리오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인작가와 기성작가별 맞춤형 지원 시행('16년 15억원)**
 - [신인] 창작지원, 창작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 병행
 - [기성] 창작지원, 완성된 시나리오의 영화화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제작·투자사와 만남의 기회 제공
- ▶ **[제작사·프로듀서] 기획개발 프로젝트 투자펀드를 지속 조성하고, 영화기획물 개발을 지원하며, 흥행 실패한 제작사가 차기작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 기획개발 투자펀드 조성(매년 영화발전기금을 출자하여 조성되는 펀드의 일정비율을 할당하여 기획개발 투자 의무화)
 - 제작자가 작가와 짝을 이루어 개발하는 기획 시나리오 창작 지원
 - 흥행에 실패하여 차기 개발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제작자나 프로듀서에 대한 시나리오 개발비 지원('17년)

시나리오 비즈니스 플랫폼 '오프라인 시나리오 마켓' 운영('16년)

- ▶ **장르, 소재 등 시나리오 특성별로 관심있는 제작·투자사와 맺어줌으로써 영화화 가능성을 높임**
 - 시나리오 공개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중소 규모로 운영('16년 시범 운영, '17년 활성화)
- ▶ **새로 창작되는 시나리오에 더해, (온라인)'시나리오 마켓' 등록 작품, 업계에서 영화화되지 못한 작품, 웹툰 등의 영상화 가능 원작물을 재발굴하여 관심있는 제작·투자자와 연결시켜 영화화 기회 제공**

온라인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통합 영화정보시스템 (KOBIZ) 구축

- ▶ **기획, 제작, 투자 등 영화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비즈매칭 시스템 구현**
 - 국내외 영화산업 관계자에게 시나리오, 제작사, 스태프 등 고부가가치 산업정보 제공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2 영화제작 시장의 허리를 튼튼하게 강화

중급영화 제작지원, 강소기업 육성지원

8) 저작권 확보와는 관계없이 이윤만을 목적으로 영화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9) 영화 저작권을 확보하여 자사의 저작권 비즈니스에 활용할 목적으로 영화에 투자하는 투자자

▶ 중급영화가 활발하게 제작되도록 중소영화전문 투자펀드를 지속 조성

— '16년~'18년까지 3년간 매년 100억 원 출자, 총 5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16년은 CG/VFX 분야와 복합 펀드 조성)

▶ 영화발전기금을 활용한 중소 영화기업 대상 융자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실행하여 안정적인 기업운영과 성장이 가능한 환경 조성('17년)

— 영화발전기금 출연 및 금융권 연계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낮은 이자로 대출

▶ 더 많은 재무적 투자자⁸⁾(금융권) 자금의 영화 유입 통로를 확대하여 전략적 투자자⁹⁾(투자배급사) 중심의 영화제작비 조달구조와 제작사 역할 다변화

— 콘텐츠가치평가모형 도입과 연계(한국콘텐츠진흥원 협력)하여, 영화를 핵심분야로 개발하고 재무적 투자자에게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정보제공

애니메이션 등 어린이·가족영화의 경쟁력 강화

▶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영화관 개봉용)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획, 제작, 배급(유통) 지원('16년)

- 초기 기획개발 및 파일럿 작품 제작지원(연 3편, 편당 2억원)
- 본편 제작지원(연 2편, 최대 7억원) 및 투자 유치 연계(애니메이션 전문 투자펀드와 연계)
- 홍보·마케팅·배급 등 상영관 개봉 지원(연 3편, 편당 1억원 이내)
- 애니메이션 영화 프로젝트 마켓을 육성하여 기획·제작·투자·배급 단계별로 관심 있는 창작자·제작·투자·배급사와 연결(기존 국제영화제 활용 및 신규 마켓 운영 병행)

▶ 주요 국제영화제에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초청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저예산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을 지원

— 국내 개최 국제영화제와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행

▶ 애니메이션 영화 투자의무 펀드 조성¹⁰⁾('17년, 향후 2~3년 주기 지속, 문화계정) 및 어린이·가족영화 제작비 지원

10) 현재 460억 규모로 운용중인 2개의 애니메이션 펀드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에 투자되고 있어 향후 조성 펀드는 극장용 의무 투자비를 설정 검토

▶ 국제 공동제작 애니메이션 영화의 한국영화 인정기준 강화

— 한국 제작·창작요소 사용정도 기준을 현행 25%에서 상향조정

* 국제 공동제작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 국내인력 고용, 창작·제작 노하우가 축적되어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기반 조성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3 영화인의 전문성이 일하면서 커지도록 지원

현장·예비 영화인 경력정보 시스템 구축('17년)

▶ 현장·예비 인력의 경력관리를 지원, 시장에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 영화인들은 자신의 이력(포트폴리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작사 등 현장수요자들은 인력 탐색시간 및 비용 절감

* 현장 인력은 유관 협회·단체, 예비인력은 대학 영화과, 영화전문학교 등과 협력을 통해 정보 확보, 시스템 구축

▶ 구인·구직 연결, 교육훈련, 4대 보험 등 근로계약 관련 상담, 커뮤니티 구축 등 영화인 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영화인 교육의 허브로 육성('16년)

▶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육과정에 조명, 분장, 의상, 음향, 특수효과 등 다양한 분야의 신진인력이 참여하여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연출·촬영 중심의 한국영화아카데미 특성상 다른 분야 스태프를 직접 양성할 수는 없으나 교육 참여와 연계를 통해 간접교육 및 역량 발휘 여건 부여

▶ 새롭게 등장하는 창작경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현장 영화인 역량강화 과정' 운영(영화아카데미 플러스 개편, 2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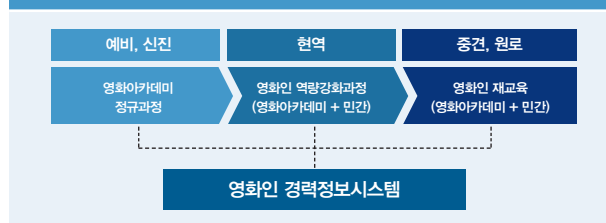
– 현장 영화인들로부터 실력 향상이 필요한 분야나 기술을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맞춤형 교육·세미나·워크숍 등 제공

▶ '중견·원로 영화인 재교육' 및 지역공동체 영상문화 활동 연계('17년)

– 중견·원로 영화인 대상 최신기술, 동향 등 교육(리턴 마스터 교육)

– 해당 영화인들이 지역, 문화기관 등에서 영화 관련 교육이나 강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영화인 생애주기 맞춤형 경력관리 지원체계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4 상상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국영화 기술 향상 지원

영화제작과 연계하여 기술수준 향상 지원('16년)

- ▶ 첨단기술(3D 등)을 활용하는 영화 그리고 기존에 없는 형태의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플랫폼(스크린X, HMD(Head-Mounted Display))에 유통될 영화의 제작을 지원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촉진
 - 첨단 실험영화 제작지원(연 5편), 우수 SFX 장면 제작지원(연 3건), 현장영화제작기술 개발 지원(연 3건) 등
- ▶ 영화기술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및 기술전문 웹진 운영을 통해 새로 개발된 기술의 업계 공유를 확대하고, 한국 영화계의 전반적인 기술 역량 강화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16년)

- ▶ 시각특수효과(VFX) 표준계약서 개선 및 사용 활성화
 -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임
- ▶ 문체부에서 만든 CG/VFX 전문펀드가 투자하는 영화 제작비 투자금은 CG/VFX 작업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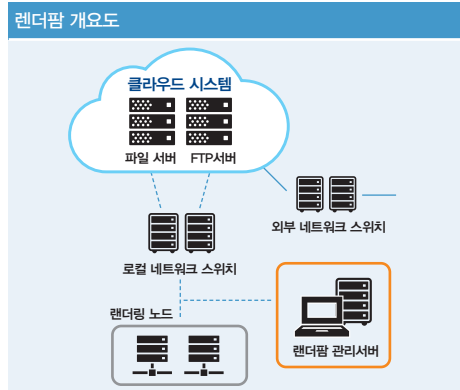
영화 특수효과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16년)

- ▶ CG/VFX 기술을 사용한 영화에 투자하는 전문펀드 조성, 운용
 - '16년 2개 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에서 각각 200억원 규모로 결성 예정

- ▶ 대규모 공공 렌더팜¹¹⁾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

- 대용량·고화질의 영화와 애니메이션 CG작업 환경 마련
- * '16년 43억원, '18년까지 3년간 700노드 규모 예정.
- 국내 렌더팜의 통합이용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방식의 플랫폼 연구개발

11) 렌더팜(Render Farm)은 영화 등에 사용하는 컴퓨터 그래픽을 생성하기 위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성한 것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 ▶ 근로, 제작, 배급, 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이 공정한 질서 아래 상생해야 한국영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
- ▶ 신진 창작자가 창의적 영화를 활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영화를 창작·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한국영화 창의력 기반 확대
- ▶ 영화 향유 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계층에 영화관람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5 공정하게 일하며 두루 성장하는 영화산업 만들기

동반성장하는 산업환경 만들기

12) Minimum Basic Agreement.
조합간 최소 기준을 정하는
미국의 단체협약으로, 미국 작가
조합, 감독조합 등 창작자조합이
스튜디오를 포함한 제작자
조합과 3년 단위로 체결

- ▶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업계 정착을 유도
 - 직능별 표준계약서 사용 단체간 최소기준보장협약¹²⁾ 도입 지원
- ▶ 영화진흥위원회 산하「공정환경조성센터」를 운영, 불공정행위 신고·제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시정(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조)
 - 공정한 비용·수익정산 길잡이 보급
 - 분쟁 조정, 소송 등 법률 행위 지원
 - 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인 신문고 등 관련 협의체나 지원기관 활성화
- ▶ 창작·유통 환경의 공정성을 높이는 업계 자율체제 유도
 - 1기 한국영화 동반성장 협약('12년) 이행사항 점검 및 새로운 과제 발굴 추진 등

영화인이 일하고 싶은 현장 만들기

- ▶ 30억원 미만의 중·저예산 영화제작에 종사하는 스태프에게 사회보험료 지원('17년)
 - 단속적 근로환경에 놓인 스태프가 비고용 시기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납입 지원
 - * 사회보험 가입 관행 정착을 목표로 고용보험료는 전액을 지원하되, 3~5년 정도 한시지원 원칙, 시행 후 타 사회보험으로 단계적 확산 검토
- ▶ 영화제작시 인건비는 별도계좌로 관리하게 하고, 정부 투자펀드에서 투자 시 해당 인건비 계좌에 우선 지급('16년)
- ▶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 ('16년~, 연구·실태조사 등)
 - * 표준보수지침 : 현장의 직종, 직급별 임금 수준을 토대로 적정 기준 제시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6 창의적인 영화가 지역마다 자라나도록 지원

지역 영화창작 및 산업저변 확대

- ▶ 지역별 신진 영화인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영화(제작비 1억원 미만)가 창작되고 공모전, 영화제에 출품되어 전국에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17년)
- ▶ 지역 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여 지역 영화인을 육성하고 지역 영화 문화산업 생태계 형성 유도('17년, 지자체 매칭)
- ▶ 예술영화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상영¹³⁾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예술영화 의무상영제도' 도입 검토('16년)
 - 현행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 1년의 1/5인 73일)를 활용
 - 기초 연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 필요성, 산업 영향 등을 검토한 후 도입 방안 마련

13) 최근 5년간('11~'15) 예술영화 관객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 관객 비중은 66%

다양성영화 창작 활성화 및 산업화 지원

- ▶ 다양성영화 영화상영관 개봉,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마케팅 지원
 - 영화상영관 배급·홍보 마케팅 등 개봉 지원(연 15편)
 - 온라인 VOD 플랫폼에 다양성영화 카테고리 편성 및 홍보가 가능하도록 마케팅 지원(연 50여편)
- ▶ 다양성영화 지원 확대, 산업화 기반 마련
 - 제작비 1억원 이상 영화에 편당 최대 1억 5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지원금액 상향
 - * 저예산영화를 제작할 때 현장 스태프들이 재능기부, 열정페이 아닌 산업 종사자로서 적정 댓가를 받으려면 제작비 3억원 이상 작품부터 가능하다는 의견
- ▶ 촬영 장비 지원, 후반 작업 지원(녹음, 디지털 영상화 등)

다양성영화 산업화 및 자생성 구축 체계

- ▶ 장편 다양성영화 편당 지원금액 상향(최대 3억)
- ▶ 신진 영화인 첫 번째·두 번째 영화 제작 지원
- ▶ 지역영화 기획개발, 제작 지원
- ▶ 장비, 기술서비스 지원

제작 지원

안정적
상영환경 조성

- ▶ 한국예술영화 의무상영제도 도입
- ▶ 공공 상영인프라 활용

자체 창작

수익 창출

관객 확대

- ▶ 개봉·홍보 지원
- ▶ 영화제 지원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7 더 많은 사람이, 더 잘 누리도록 도움

영화창작과 향유문화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환경개선

-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작은영화관-공공다양성영화전용관-찾아가는 영화관-영상문화나눔버스' 등 촘촘한 향유 인프라를 확산시키고 운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영상문화동호회 활동을 지원

- 유관 시설간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프로그램 공유 등 운영효율을 높이고, 광역지자체와 공동추진으로 지속적 운영

- ▶ '한국영상문화제전'을 전국 단위로 확대('17년)하고, 지역 영화동호회 지원과 연계, 지역의 영화 창작교육 활성화('16년)

- 지역 단위 행사 후 전국 단위의 전시·경연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스토리 발굴(지자체 공동)

- 전국 분야별 우수사례 발굴·지원 → 결과물 홍보 → 전국 확산

* 영화 향유 인프라를 거점으로 청소년, 노인 및 지역 영화동호회 활동 지원

- ▶ '영화상영관 품질 컨설팅제도'를 도입하여 영화관람 환경개선('17년)

* 스크린 밝기·비율, 음향, 관람 시야, 상영관 조명, 안전 등 지표 표준화 및 적용

장애인·다문화 등 소외 분야 영화 향유 기반 확대('16년)

- ▶ 시청각 장애인용 '화면해설 자막영화' 제작지원을 확대(현 36편에서 70편 수준¹⁴⁾)하고, 장애인 관람 편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하여 보급

- ▶ '우수영상물 외국어자막상영' 지원¹⁵⁾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족 등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영화 관람 기회 제공

- ▶ 고전·필름영화 보존 및 관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화(UHD 버전) 지원

- 한국영상자료원, 온라인 VOD 업계와 협력하여 디지털화하고, 유통 채널에 제공

14) 화면해설 자막영화는 연간 제작되는 상업영화 전체 편수(제작비 10억원 이상)를 목표로 제작 확대

15) 현재 3개 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변환하여 연 70회 상영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 ▶ 온라인은 영화관 중심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핵심 시장이므로 유통 지원, 통계 집계 체계 구축, 불법이용 대응 등으로 시장변화에 대처
- ▶ 해외 영화의 국내촬영은, 일자리를 늘리고, 외국 제작투자자와의 교류를 넓히며, 촬영장소를 관광지로 홍보할 수 있게 되는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적극 유치 필요
- ▶ 산업 성숙단계에 진입한 국내영화산업의 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 확대가 필수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Ⅲ 온라인 영화시장을 키워 영화산업 먹거리를 찾도록 지원

‘온라인 영화관 통합전산망’ 구축, 운영 ('16년)

- ▶ 온라인 영화시장의 이용 및 유통에 관한 정확한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온라인 영화 서비스 산업 환경 기반을 파악하고 영화 창작-제작-투자-배급-유통 주체들 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움

— 온라인 영화의 판매 건수, 매출금액, 박스오피스 등을 주간, 월간 등 시기에 따라 자동으로 집계하여 제공

* 대상 : IPTV사업자, 케이블사업자, 포털, 모바일 등 온라인 영화서비스 사업자

— 영화관·온라인 '통합 박스오피스' 정보제공 및 내외부 정보를 결합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정보제공

온라인 영화서비스 시장 활성화

- ▶ 단편영화가 온라인/모바일에서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웹시네마화와 유통을 지원('17년)

— 기존 단편영화에 대한 플랫폼 변환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활성화되는 경우 온라인용 초단편영화(웹시네마) 제작지원 추진

* 포털·모바일 기업과 연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작품, 각종 영화제 출품작 등 서비스

- ▶ 온라인 상영영화와 최초 개봉 영화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큐레이션 서비스)하여 온라인 관람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17년)

* 통합전산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털 등 민간 업체와 연계하여 확산

중소영화 불법이용 대응체계 구축

- ▶ 자체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불법이용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

— 영화 불법 업/다운로드 모니터링, 불법 영상물 제거 조치

* 영화진흥위원회, 참여 기업, 저작권보호센터 등 민간 및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 주요 메이저 배급사들은 전문업체를 활용해 자체 불법 모니터링 실시 중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9 세계가 선택하는 촬영 인프라 마련

국내 촬영 인프라 강화

▶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규모에 맞는 대형 실내스튜디오, 야외 세트 및 촬영 시설 건립('16~'20년, 부산 글로벌 영상인프라)

– 대형(1,700평), 중형(700평) 등 실내스튜디오, 아트워크 등 제작지원시설, 첨단 후반작업시설, 숙소 등(영화진흥위원회 부산 이전과 연계)

* 영상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국가들은 1천평 이상의 대규모 촬영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촬영유치제도를 활용해 부가가치 창출

해외 대규모 촬영 스튜디오



영국 파인우드 스튜디오



체코 바라노프 스튜디오



독일 바벨스베르크 스튜디오

▶ 국내 스튜디오, 세트장 등 촬영소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17년)

– 촬영소 주변의 영화촬영 적합 장소 등 기타 정보까지 제공하여 국내 촬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임 (지자체, 지역 영상위원회와 협력)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영상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하여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 확대

▶ 영상위원회가 해외 영화제, 로케이션 박람회, 각종 필름마켓에서 국내 촬영지와 인센티브 제도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원

▶ 범용·장소별(도로, 문화재 등) 촬영지원 매뉴얼 제작 보급

– 해당 장소 관할 기관과 영상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 서울·부산·제주 이외 다양한 지역에서 해외 영상물이 촬영될 수 있도록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제도에 지역 쿼터 운영('16년)

– 지원금액의 일부(20% 이내)를 지역 쿼터로 배정(수요가 없으면 전국 대상)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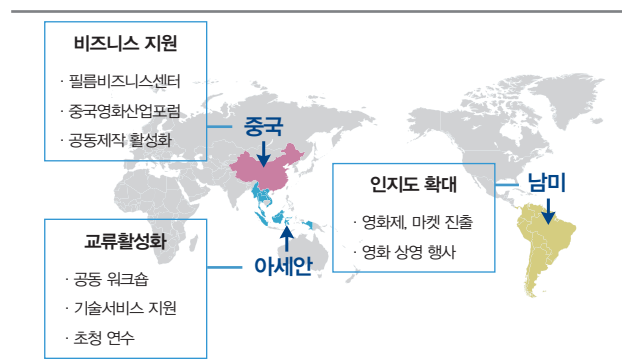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10 영화산업 영토를 넓히는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성장 유망 시장 진출 및 교류확대 (‘16년)

- ▶ **[중국]** 제작자, 창작자, 투자사, 기술회사의 현지 진출과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동제작 활성화
 - ‘중국영화산업포럼’을 구성(민관 합동)하여 진출현황, 문제점,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현지 법·제도 등 관련 정보 제공
 -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기능 강화(기획개발 및 비즈니스 미팅, 법률/콘텐츠 컨설팅, 견본계약서 개발·제공, ‘한국영화감독 쇼케이스’ 등 진출 지원)
- ▶ **[아세안]** 인적·물적 지원으로 교류를 활성화하여 향후 현지시장 성장 시 한국영화와 한국 영화사·영화인 진출을 용이하게 함
 - 창작·정책 등 분야별 워크숍 개최, 아세안 국가 영화를 대상으로 디지털화, 시각특수효과 등 기술 서비스 지원
 - 아시아 공동제작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영화 공동제작 및 비즈니스 경험·정보 공유
 - * 중국·아세안 국가 투자·제작·배급·상영 정산시스템 실무강의, 계약서 분석, 공동제작 작품 케이스 스터디 등
- ▶ **[중남미]** 한국영화 홍보 강화로 인지도를 높여 한국영화 수요 확대
 - 3대 거점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에서 개최하는 영화제에서 한국영화상영 확대, 필름마켓 참여 등 지속적인 홍보 강화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한국영화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속

▶ 주요 국제영화제와 필름마켓, 온라인 영화서비스플랫폼 등을 통해 한국영화 상영 및 수출 비즈니스 지원

▶ 한국 극장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등)의 해외 진출 상황¹⁶⁾을 활용하여 한국영화의 현지상영 확대 전략 수립, 시행

▶ 한국영화를 배급하는 외국 배급사들의 현지 홍보활동 지원('17년)

* 해당 나라의 상영관 개봉에 맞추어 우리나라 감독이나 배우 초청 지원 등

▶ 해외 한국대사관, 문화원 등에서 개최하는 한국영화제, 기획전 지원

▶ 한국영화 해외저작권 보호 모니터링

— 중국, 동남아시아 내 한국영화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 등 저작권보호 활동 실시

*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해외 현지 유관기관과 협력

16) CGV, 롯데시네마의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 극장 운영 본격화 (2015.12 기준)

— CGV (국가/극장/스크린)
중국 / 61개 / 484개
베트남 / 29개 / 189개
인도네시아 / 19개 / 139개
미얀마 / 4개 / 9개

— 롯데시네마
중국 / 10개 / 83개
베트남 / 22개 / 99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미래 한국영화는,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영화관이 설치되어
거주 지역 차별 없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되어
국민 1인당 평균 4.5회 영화관람

가족, 로맨스를 다룬 대중영화에서, 고예산의 SF 판타지,
영리하게 연출된 스릴러, 삶의 본질을 표현한 예술영화
까지, 잘 집필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충분한 제작비를
들여 제작된 한국영화가 매주 1편씩 개봉

〈아바타〉와 같이, 시각특수효과를 사용하여 상상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표현한 영화가 흥행시즌에 개봉되어
국내외 흥행에 성공

한국영화 대형 투자배급사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투자배급하여 연간 5편 내외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극장에서 한국 어린이, 가족 관객과 만남





I. 지금 한국영화는

II. 우리 영화시장 진단과 발전방향

III.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IV. 미래 한국영화 모습

한국이 **영화촬영 서비스와 제작기술** 측면에서 **아시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어 중국, 미국 등에서 제작하는大作 영화 다수가 한국 내 글로벌 스튜디오에서 촬영과 기술서비스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고용과 GDP 증가

전국 **모든 광역 시·도민**이 공공다양성 영화전용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편하게 관람하고, 영상문화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창작과 향유** 활동을 영위

한국영화 **온라인 시장 매출**이 극장시장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 한국영화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온라인 시장**이 극장 상영기회 부족을 보완할 수 있게 됨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문학과 미술과 음악을 배우듯 영화를 배우고, 큰 어려움 없이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

영화제작에 고용되는 모든 **스태프**들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영화를 직업으로 삼아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면서 **안정된 생계**를 꾸려나감



| 참고 | 주요 과제 추진 일정

과제 내용	시기	비고
1.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1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화가 되도록 지원		
▶ 시나리오 창작 지원	2016	개선
▶ 기획개발 프로젝트 투자펀드 조성	2016	
▶ 제작사·프로듀서 기획개발 지원	2017	개선
▶ 오프라인 시나리오 마켓	2016	신규(시범)
▶ 온라인 통합 영화정보시스템(KOBIZ) 구축	2016	개선
2 영화제작시장의 허리를 튼튼하게 강화		
▶ 중소 영화 전문 투자 펀드 조성	2016	
▶ 중소 영화기업 융자 지원	2017	신규(단계)
▶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배급(유통) 지원	2016	
▶ 애니메이션 영화 투자유무 펀드 조성	2017	신규
▶ 가족 영화 제작지원	2016	
3 영화인의 전문성이 일하면서 커지도록 도움		
▶ 영화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2017	신규(단계)
▶ 한국영화아카데미 정규과정	2016	개선
▶ 현장 영화인 역량강화 과정 운영	2016	개선
▶ 중견·원로 영화인 재교육	2017	신규
4 상상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국영화 기술 향상 지원		
▶ 첨단실험 영화 제작지원	2016	
▶ 시각특수효과(VFX) 표준계약서 개선	2016	
▶ CG/VFX 영화 투자 전문펀드 조성	2016	신규
▶ 공공 렌더팜 구축	2016	신규(단계)
2.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5 공정하게 일하며 두루 성장하는 영화산업 만들기		
▶ 중저예산영화 스태프 사회보험료 지원	2017	신규(단계)
▶ 정부 투자펀드에서 영화 투자 시 인건비 우선 지급	2016	신규
▶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	2016	신규(단계)
▶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공정환경조성센터 운영)	2016	

과제 내용	시기	비고
6 창의적인 영화가 지역마다 자라나도록 지원		
▶ 신진 영화인 첫 번째 · 두 번째 영화 제작 지원	2017	신규
▶ 지역 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2017	신규(지자체)
▶ 한국예술영화 의무상영제도 도입 검토		신규(단계)
▶ 다양성영화 제작-배급(유통) 지원	2016	
7 더 많은 사람이, 더 잘 누리도록 도움		
▶ 지역 영화 향유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2016	
▶ '한국영상문화제전' 확대	2017	
▶ 지역 영화동호회 활동 지원	2017	
▶ 영화상영관 품질 인증제 도입	2017	신규
▶ 시청각 장애인용 화면해설자막영화 제작 지원	2016	* 단계적 확대
▶ 우수영상물 외국어자막상영 지원	2016	* 단계적 확대
▶ 고전 · 필름영화 디지털화 지원	2016	
3.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8 온라인 영화시장을 키워 영화산업 먹거리를 찾도록 지원		
▶ 온라인 영화관 통합전산망 구축, 운영	2016	신규(단계)
▶ 단편영화의 웹시네마화 및 유통 지원	2017	신규
▶ 온라인 개봉 · 상영 영화 홍보 지원	2016	
▶ 중소영화 불법 이용 대응 체계 구축	2016	개선
9 세계가 선택하는 촬영 인프라 마련		
▶ 대형 종합 촬영소 건립	2016	신규
▶ 국내 촬영소 관련 통합 정보 제공	2017	신규
▶ 외국영상물 국내 촬영 인센티브 지원	2016	개선
10 영화산업 영토를 넓히는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해외시장별 특성에 맞는 진출 지원	2016	신규, 개선
▶ 해외 수출 및 홍보 지원	2016	
▶ 외국 배급사 한국영화 배급 지원	2017	신규
▶ 한국영화 해외저작권 보호 모니터링	2016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 2016-2018

융성하는 영화산업, 세계로 향하는 한국영화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산학캠퍼스 13, 14층

전 화 051-720-4700

홈 페이지 www.kofic.or.kr

편집디자인 디자인글꼴 www.ggad.co.kr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영화진흥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